

美 증시 너마저... 갈곳 잃은 투자자, 돌고 돌아 中으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 하락세
中 증시회복... 온라인소비재 등 주목
2월 ETF수익률 상위권도 中 점령

불안한 증시 속 갈 곳 잃은 투자자들의 자금이 다시 한번 중국 증시로 향하는 분위기다. 예상과 달리 금융당국의 발 빠른 대응으로 코로나19 발생 초기의 낙폭을 만회하며 V자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수의 상승세는 상장지수펀드(ETF)에도 반영됐다.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시행 중인 상황에서 오름세는 계속될 것이라 분석도 나온다.

미국 증시 투자를 안전자산으로 생각했던 투자자들의 시름은 깊어졌다. 26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123.77포인트(0.46%) 하락한 2만 6957.59에 거래를 마쳤다. 5거래일 연속 하락세다. 낙폭 자체는 크지 않지만 2200포인트까지 밀린 상황에서도 기술적 반등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17%로 소폭 올랐지만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0.38% 내렸다.

<이달 ETF 수익률 상위 10종목>

순위	운용사	ETF명	수익률(%)	보수
1	삼성자산운용	KODEX 심천ChiNext(합성)	27.52	0.47
2	한화자산운용	ARIRANG 심천차이넥스트(합성)	22.82	0.5
3	케이비자산운용	KBSTAR 팔라듐선물(H)	21.85	0.6
4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차이나 CSI300레버리지(합성)	21.28	0.59
5	한국투자신탁운용	KINDEX 중국본토 CSI300레버리지(합성)	19.52	0.5
6	신한비엔피파라비자산	SMART 중국본토 중소형 CSI500(합성 H)	16.93	0.6
7	한국투자신탁운용	KINDEX 중국본토CSI300	12.03	0.7
8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차이나CSI300	11.61	0.63
9	삼성자산운용	KODEX WTI원유선물인버스(H)	10.47	0.35
10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원유선물인버스(H)	10.13	0.7

/한국거래소

반면 코로나19의 근원지인 중국 증시는 완전히 회복했다. 춘절 직후 4일 저점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27일 대형주 위주 상하이종합지수는 이달 저점 2685포인트에서 2991포인트로 약 11% 상승했다. 주식시장 2부 격인 기술주 중심의 심천종합지수는 지난 4일 1553포인트에서 17거래일 만에 20% 이상 급등했다. 투자자들의 시선이 중국 증시로 돌아가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중국 증시의 상승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위기 상황에서 중국 주식을 늘려야 한다”는 통념이 이번에도 적용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 부양책 시행 본격화로 인한 반등 조짐이 보여서다. 소비와 인프라 수요가 산업 경기 회복을 이끌 것으로 분석된다.

전종규 삼성증권 연구원은 “중국 증시는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매력, 정부의 강력한 부양 정책에 바탕을 둔 추가적인 반등 모멘텀이 있

다”라며 “최근 일련의 조정이 전화위복의 기회”라고 설명했다.

춘절이 끝난 후 인민은행이 중기유동성 지원창구(MLF) 금리 인하 등을 단행하며 급격히 불어난 유동 자금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중앙정부가 발표한 대규모 감세 및 보조금 지급 조치도 큰 힘이 됐다. 여기에 시장에서 선 중국 기준금리인 1년 만기 예금과 대출 금리도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온라인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을 눈여겨 보라는 조언이 나온다. 코로나19 사태로 외출을 자제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며 급격한 실적 반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인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온라인 소비 반등이 빠르게 가시화되고 있다”며 “2003년 사스 사태를 계기로 성장한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 징동과 같은 B2B, B2C기업이 사례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배달서비스 1위 업체인 징동 따오지의 춘절 기간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470% 올랐다. 추가로 주목해야 할 업종으로 TMT(테크·미디어·텔레콤) 성장

주를 꼽았다.

ETF 역시 상승세다. 이달 ETF 수익률 상위권에 중국 ETF들이 다수 이름을 올렸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ODEX 심천ChiNext(합성)은 27.52%로 전체 ETF 중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 ARIRANG 심천차이넥스트(합성) 22.82%, KBSTAR 팔라듐선물(H) 21.85%, TIGER 차이나CSI300레버리지(합성) 21.82%, KINDEX 중국본토CSI300레버리지(합성)이 21.28%, KINDEX 중국본토CSI레버리지(합성)이 19.52%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수익률 상위 10위권을 기록한 ETF 중 7개가 모두 중국발이다.

다만 위험요소는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 변경이 신흥국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준이 2분기 중 유동성 공급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그럴 경우 추가 정책 기대감 약화 등이 맞물리는 2분기 중후반 이후 중국 증시의 상승 모멘텀이 꺾일 수 있다”고 했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외인 자금 하루새 1조588억 이탈... 8년6개월來 최대

코로나19 확산에 국내 투자 불안
삼성·하이닉스 등 IT주 집중 매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8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은 규모의 주식을 팔았다. 코로나19가 지역사회까지 확산되며 국내 증시 투자에 대한 불안감이 극도에 이르렀다는 방증이다. 그들의 대규모 순매도 행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전날 국내 주식시장(코스피·코스닥)에서 1조588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이날 하루 순매도 금액은 지난 2011년 8월 10일(1조2763억 원) 이후 8년 6개월여 만의 최대 규모다.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하루 만에 8761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일별 순매도 기준으로 9551억 원을 판 2013년 6월 13일 이후 6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은 금액을 팔아치웠다.

대형 정보기술(IT)주를 집중적으로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26일 가장 많이 순매도한 종목은 삼성전자(3973억 원)와 SK하이닉스(1367억 원)였다. 이날 하루에만 5340억 원어치의 매물을 쏟아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확대되며 연초 상승 폭이 컸던 종목을 중심으로 일제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은 27일 역시 4076억 원을 팔아쳤다. 이날까지 이달 국내 주식시장에

서 외국인 순매도 금액은 2조 8415억 원에 달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경기 둔화 및 기업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하향 조정하는 가운데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OA)는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감소가 우려되며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실적 부진 우려가 부각되면서 투자심리 전반이 위축된 가운데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가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을 막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연일 국내 주식을 사들이

는 중이다. 외국인이 8000억 원 이상 팔아치운 26일 개인은 7847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외국인이 뺀낸 매물을 대부분 받아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세에 접어들면 급격한 주가 반등이 나타날 것이라 예상하고 저가 매수에 나선 것이다. 전염병 공포로 인한 증시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는 얘기다. 기관도 384억 원어치를 사들이면서 소폭이나마 순매수로 돌아섰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보면 단기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열여놓아야겠지만 중국에서는 사태가 서서히 진정되고 있다. 국내 증시 역시 현재 지수 레벨에서 추가적인 급락은 제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송태화 기자

재건축 수주전 본격화 안암1구역 27일 총회

반포1단지 3주주 현장설명회가 지난 25일 개최된 가운데 재건축 사업 시공권을 위한 국내 건설사의 수주전이 본격화 되고 있다.

서울 성북구 안암1구역 재건축 정비조합은 27일 오후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연다. 시공권을 두고 한신공영과 한진중공업이 맞붙는다. 조합은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조합원 의견을 거쳐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

안암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5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한신공영과 한진중공업이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현장설명회에는 이들 업체 외에도 ▲남광토건 ▲한라 ▲동문건설 ▲반도건설 등이 다녀갔지만 최종 입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안암1구역 재건축은 안암로9나길 14(안암동3가) 일대 1만5124.2㎡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3층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이 외에도 서울 재건축 사업을 두고 대형 건설사의 수주 경쟁이 한창이다. 국내 건설사들은 서울 반포주공1단지 3주주(재건축), 신반포15차(재건축), 한남3구역(재개발) 등으로 시공권 획득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반포주공1단지 3주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5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진행했다. 6개 건설사가 참여해 상황을 이뤘다. 이날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건설사는 삼성물산, 대림산업, GS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총 6곳이다.

/정연우 기자 ywj964@

육아부터 제빵까지... 메리츠證, 13년째 나눔 실천

메리츠 참사랑 봉사단
매월 한번 자발적 봉사활동 펼쳐

메리츠증권은 지난 2007년 봉사단 출범 이후 매월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자발적 활동임에도 참여 열기는 뜨겁다.

27일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출범한 ‘메리츠 참사랑 봉사단’은 매월 한 차례씩 다양한 테마의 봉사활동과 기부를 실천하고 있다. 실무진이 전 직원에게 사내메일을 보내면 관심있는 직원이 신청을 하는 식이다. 100% 자발적 활동이다.

‘참사랑봉사단’은 어르신 생신잔치, 무료급식 지원 활동, 김장활동과 나누기, 사랑의 연탄배달 등 다양한 테마의



메리츠증권 임직원과 그의 가족들이 서울 마포구, 서대문구 등에 소재한 초등학교에서 벽화그리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메리츠증권

봉사활동을 매월 돌아가면서 수행하고 있다.

우선 분기별로 두리훅을 방문해 ‘미혼모 아기 돌보기’ 활동을 하고 있다. 경제활동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는 미혼모를 돕기 위해서다. 지난해 12월 21일에는 임직원과 직원 가족 13명이 두리훅의

가족들과 함께 영등포구 소재 씨탈라 워터파크를 방문해 물놀이를 즐겼다.

매년 여름에는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를 진행한다. 2008년부터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다. 행사 두어달 전부터 임직원으로부터 물품을 자발적으로 기증 받고, 행

사 당일에는 임직원들이 명예점원이 되어 판매활동을 펼친다. 활동을 통한 판매수익은 전액 기부한다.

낙후된 지역 환경 개선 일환으로 벽화그리기 봉사활동도 연례행사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주말을 활용해 임직원과 그 가족들이 함께 봉사할 수 있는 활동으로 봉사와 여가라는 두 가지 즐거움을 충족할 수 있어 호응도가 높다.

이 외에도 대한적십자사 구로봉사센터를 통해서 사랑의 빵 만들기과 만든 빵을 소외계층에 전하는 활동도 하고 있다.

또 설이나 추석 등 명절마다 인근 지역 홀로된 어르신들에게 명절 음식을 대접한다. 지난 1월 21일에는 구정을 맞이해 38명의 인원이 직접 포장한 명절 음식을 마포구 일대 135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일이 찾아가 전달했다.

/손은지 기자 sonumji301@